Scheherazade, Op. 35

- □□

정보

개요
곡명: Scheherazade, Op. 35
작곡가: Nikolai Rimsky-Korsakov (1844–1908)
작곡 시기: 1887–1888년 겨울 구상, 1888년 여름 완성
초연: 1888년 11월 3일 (러시아 구력 10월 22일), St Petersburg 귀족회관의 Russian Symphony Concert. 작곡가 지휘
헌정: Vladimir Stassov
장르: 관현악을 위한 4악장 교향적 모음곡

IMSLP: Scheherazade, Op. 35

Wikipedia: Scheherazade

Nikolai Rimsky-Korsakov의 《Scheherazade, Op. 35》는 《천일야화》에서 가져온 장면을 네 악장에 배치한 관현악 모음곡이다 . 바다와 Sinbad의 배, Kalendar 왕자 이야기, 젊은 왕자와 공주, Baghdad의 축제와 난파가 차례로 등장한다. 이 장면들을 한데 묶는 바깥 이야기는 날마다 새 아내를 죽이던 Shahryar 왕과, 밤마다 이야기를 들려주어 자신의 죽음을 미루는 Scheherazade의 관계다. 이 글은 1888년 관현악 전곡을 다루며, 같은 음악을 이용해 1910년에 만든 발레는 별도 무대 작품으로 구분한다.

출판 정보와 자료

Rimsky-Korsakov는 Borodin이 남긴 오페라 《Prince Igor》를 정리하던 1887–1888년 겨울에 새
관현악곡을 구상했다. 다음 여름 Nyezhgovitsy에서 《Scheherazade》와 《Russian Easter Festival Overture》를 완성했다. 두 작업의 시기가 겹친다고 해서 《 Prince Igor》의 선율이 모음곡에 직접
옮겨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작품은 Vladimir Stassov에게 헌정되었고 , 작곡가는 1888년 St Petersburg의 귀족회관에서 열린 Russian Symphony Concert에서 첫 공연을 지휘했다. 공연장을 이어받은 St Petersburg Philharmonia의 기록은 당시 러시아 달력으로 10월 22일, 현재 달력으로 11월 3일을 가리킨다.

1889년 Leipzig의 Belaieff가 관현악 총보와 파트보를 출판했고, 작곡가의 네 손 피아노 편곡도 같은 출판
계열에 속한다. 1888년 자필 총보는 St Petersburg의 National Library of Russia에 있다. 모스크바의
Russian State Library가 소장한 1889년 인쇄 총보 앞에는 러시아어와 프랑스어로 작품의 이야기 틀과 네 장면을 알리는 프로그램이 실렸다. 자필 악보의 장면 이름, 초판 앞머리의 프로그램, 각 악장 머리에 붙은
표제는 같은 종류의 자료가 아니다. Rimsky-Korsakov는 훗날 새 판에서 개별 장면을 암시하는 표제를
지웠다고 회고했지만 , 이야기에 대한 앞머리 안내까지 모든 판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악보 연구자 Jonathan Del Mar는 초판 총보와 파트보가 서로 독립적으로 제작되어, 대목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정확한 표기를 전하는지가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가 비교한 자료에는 자필 총보와 1991년 《 Russian

Symphonic Music》 제 13권도 포함된다. 이 1991년 총보는 일부 오류를 고쳤지만 초판 파트보를 대조하지 않아, Del Mar는 이를 엄격한 원전판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오늘 구할 수 있는 Belaieff의 BEL 333 학습용 총보와 Kalmus의 Nieweg/Holmes 편집 총보 ·파트 세트는 실제 접근 경로다. 연주할 때 특정 재인쇄본의
총보와 파트보가 항상 완전히 일치한다고 가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요 시간

Belaieff 대여 자료는 약 41분, St Louis Symphony의 프로그램은 약 42분을 안내한다. 1957년 Thomas Beecham과 Royal Philharmonic Orchestra의 녹음은 약 46분이다. 같은 녹음에서 제 1악장 약 10분, 제 2 악장 약 12분, 제 3악장 약 11분, 제 4악장 약 13분이 걸린다. 이 수치는 한 연주의 악장별 비율을 보여 주는 표본이며, 지휘자의 빠르기와 독주 구절의 호흡에 따라 전곡 길이가 달라진다.

편성

목관은 독립된 Piccolo, Flute 2(제 2주자는 Piccolo II 겸임), Oboe 2(제 2주자는 English horn 겸임), A/B♭ Clarinet 2, Bassoon 2다. 금관은 F Horn 4, A/B♭ Trumpet 2, Trombone 3, Tuba다. Timpani와 Triangle·Tambourine·Snare drum·Cymbals·Bass drum·Tam-tam, Harp와 현악 5부가 더해진다. 독립 피콜로 주자와 제 2플루트의 피콜로 겸임을 합쳐 이해해야 하므로, 편성을 ‘플루트 두 대 중 한 대가 피콜로를 분다 ’라고 줄이면 실제 파트 구분이 사라진다.

여러 악장에서 활약하는 독주 바이올린은 외부 협연자가 아니라 관현악단의 악장이 연주한다. 이 주자는 제 1 바이올린 합주를 이끌다가 독주로 나와 이야기를 잇는다. 하프가 독주 바이올린 곁에서 울리는 순간과, 바순 · 오보에 ·클라리넷 ·첼로가 차례로 전면에 나오는 순간은 서로 다른 인물이 정해져 등장하는 ‘배역 목록 ’이 아니다 . 편성이 바뀔 때 음악의 서술자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거나 , 이야기 속 장면이 새로 시작되는 효과를 만든다.

밤마다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천일야화》의 바깥 이야기에서 Shahryar는 아내의 배신을 겪은 뒤 새 아내를 맞을 때마다 다음 날 죽인다. 재상의 딸 Scheherazade는 그와 결혼해 밤마다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날이 밝기 전에 결말을 남겨 둔다. 왕은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처형을 미루고 마침내 살해를 그만둔다. Rimsky-Korsakov는 이 긴
문헌을 사건 순서대로 관현악화하지 않았다. 네 악장에는 독립적인 장면이 있고, 같은 독주와 선율이 다른 상황으로 되돌아오면서 청중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존재를 기억하게 한다.

작곡가는 회고록 《 My Musical Life》에서 독주 바이올린이 Scheherazade 자신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했다. 이 선율은 제 1·2·4악장의 도입, 제 3악장의 중간, 전곡의 끝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첫머리의 무겁고 강한
합주를 이후 모든 등장에서도 곧바로 Shahryar의 ‘인물 주제 ’로 읽지는 않았다. 그 재료는 제 1악장에서
바다를, 제 2악장에서는 또 다른 사건의 음악을 이루기 때문이다. Rimsky-Korsakov는 제 2악장의 약음 금관 팡파르가 제 4악장의 난파에 다시 쓰이는 예도 직접 들었다. 두 장면에 같은 인물이 나타난다는 뜻보다, 음악적 재료가 새로운 사건 속에서 다른 표정을 얻는다는 설명이다.

작곡가가 구상했던 Prelude, Ballade, Adagio, Finale라는 일반 악장명은 출판 제목으로 굳지 않았다. 바다와 배, 왕자와 공주 같은 장면 이름은 원래 프로그램과 초기 자료에서 전해지지만 , 그는 특정 이야기의 세부

사건을 악보에 하나씩 대입하는 해석을 경계했다. 악장별 장면은 음악이 시작하는 상상의 방향을 제시한다. 독주와 반복되는 재료는 고정된 배역표 없이 그 장면들 사이의 관계를 들려준다.

이 작품의 '동양'은 여러 지역의 문학 전승을 19세기 러시아 관현악의 언어로 다시 그린 모습이다. Hamilton Philharmonic의 Daniel Sheridan은 러시아 제국의 동쪽 확장과 이국적인 음향에 대한 당대 유럽의 취향을 함께 짚는다. Rimsky-Korsakov의 악기 배합은 실제 아랍 음악을 채록해 재현한 기록이 아니라, 관현악이 상상한 《천일야화》의 무대에 속한다. 이 역사적 거리를 염두에 두면 독주 바이올린의 장식과 타악기의 색채를 특정 문화 전체의 소리로 일반화하지 않으면서도, 이 작품이 속한 시대의 청취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I. Largo e maestoso: 바다와 Sinbad의 배

제 1악장은 Largo e maestoso로 시작한다. 낮은 음역에서 현악과 금관이 함께 내는 강한 시작 뒤에 목관의 부드러운 화음이 놓이고, 하프를 곁들인 독주 바이올린이 나와 첫 이야기를 연다. 독주가 들어오는 곳은 합주가 끝난 뒤 완전히 새로 출발하는 별개의 협주곡 카덴차와 다르다. 앞의 화음에서 이어지는 소리가 화자의 등장을 준비한다.

Allegro non troppo가 시작되면 첼로의 반복되는 움직임 위에서 넓은 바이올린 선율이 나타난다. 같은 재료가 악기와 음역을 바꾸며 돌아오고, 바다의 움직임을 이루는 현악과 금관도 넓어졌다 줄어든다. San Francisco Symphony의 Michael Steinberg는 이 악장이 큰 합주뿐 아니라 관악기와 첼로의 대화를 사이사이에 배치한다고 설명한다. 바다의 크기를 항상 큰 음량으로만 표현한 악장이 아니라, 선율을 나누는 악기들이 가까워졌다 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끝에서는 관현악이 가라앉아 다음 이야기의 독주를 받아들일 자리를 만든다.

II. Lento: Kalendar 왕자의 이야기

Kalendar는 떠돌며 구걸하는 수행자를 가리킨다. 《천일야화》에는 왕자였던 이들이 그런 처지에 이른 사연이 여럿 전한다. 따라서 제 2악장의 표제는 특정한 한 왕자의 모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라는 지시가 아니다. Lento의 바이올린이 이야기를 다시 열면 바순이 새로운 선율을 들려준다. 그 선율을 오보에가 받고, 현악이 이어 연주하면서 처음의 자유로운 독창은 점차 합주의 음악이 된다.

악장 중간에는 약음기를 낀 트롬본과 트럼펫의 팡파르가 끼어든다. 목관이 길게 이야기하던 호흡이 금관의 짧은 호출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어 현악이 박을 자유롭게 뜯는 위에서 클라리넷이 레치타티보처럼 연주하고, 다시 팡파르와 빠른 스케르초가 나온다. 바순이 뒤에 돌아올 때에는 악장이 이미 여러 음색과 속도를 거쳤으므로 첫 제시의 단순한 반복으로 들리지 않는다. 이 악장은 독주자가 자신의 시간을 쓰는 구절과 여러 주자가 새 박에 함께 들어와야 하는 구절을 번갈아 놓는다.

III. Andantino quasi allegretto: 젊은 왕자와 공주

Andantino quasi allegretto의 제 3악장은 현악의 긴 노래 선율로 시작한다. 이어 플루트와 클라리넷이 가벼운 춤 선율을 더하고 작은북이 박을 분명히 한다. 두 선율이 번갈아 나타나는 동안 관현악은 소리를 넓혔다가 다시

좁힌다. 제목은 젊은 연인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지만, 어떤 《천일야화》 이야기의 어느 대화를
연주하는지까지 악보가 지정하지는 않는다.

이 악장에서는 Scheherazade의 바이올린이 맨 앞이 아니라 중간에 들어온다. 앞의 두 악장처럼 새 이야기를 여는 독주가, 이번에는 이미 흘러가던 사랑의 장면 한복판에 개입하는 셈이다. 독주 뒤 긴 노래 선율이 다시 돌아오고 음악은 여리게 끝난다. 제 4악장의 축제에서 이 악장의 선율이 빠른 형태로 돌아올 때, 그 변형을 같은 인물들이 Baghdad에 도착한 사건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작곡가 자신이 든 예처럼 같은 주제는 다른 장면에서도 음악을 연결한다.

IV. Allegro molto: Baghdad 축제, 바다와

난파

마지막 악장의 오래된 장면 설명에는 Baghdad의 축제 뒤에 바다가 나오고, 배가 청동 기마상이 놓인 바위에 부딪혀 부서진다고 적혀 있다. Allegro molto의 급한 도입은 첫 악장의 강한 재료와 바이올린의 응답을 다시 맞세운다. 이어 Vivo의 축제가 시작되면 빠른 현악, 트라이앵글과 탬버린, 금관이 여러 리듬을 겹친다. 제 2 악장의 Kalendar 선율과 제 3악장의 서정적인 재료도 이 빠른 흐름에 합류한다. 곡의 마지막 악장이 이전 악장들을 단순히 요약하는 대신, 익숙한 재료를 새로운 속도와 편성에 놓는 방식이다.

축제 다음에는 제 1악장의 바다 음악이 폭풍의 규모로 돌아온다. 제 2악장에서 들린 금관 팡파르도 난파 장면에 쓰인다. 관현악이 절정에 이른 뒤 음악이 떨리며 가라앉고, 탐탐의 한 번 타격이 그 흐름을 가른다. 그 뒤 독주 바이올린의 선율이 나타나 낮은 음역에서 한 번 더 되풀이되고 , 마침내 높은 하모닉스에 이른다. 처음의 무거운 재료도 이제는 여린 소리로 돌아온다. 배의 파괴를 그린 큰 합주에서 전곡을 끝내지 않고,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소리로 마무리하는 구성이 모음곡의 처음과 끝을 연결한다.

독주가 말하는 시간과 합주가 들어오는 시간

관현악단 악장 Nathan Cole은 2024년 회고에서 어린 시절 처음 이 곡을 연주할 때 제 1악장 도입의 목관 화음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린 뒤 바이올린을 시작했다고 썼다. 당시 리허설에서 그는 목관의 마지막 소리와 자신의 첫 음이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 수십 년 뒤 Boston Symphony의 악장으로 같은 곡을
연주하면서도 그 경험을 떠올렸다는 기록은, 첫 독주가 무대 앞의 별도 악기가 아니라 관현악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지휘자 JoAnn Falletta는 2021년 Hannah Baxter와 나눈 작품별 인터뷰에서 , 독주자에게 자유를 주되 합주가 되돌아올 시간을 함께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제 1악장에서 첼로가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과 차례로
선율을 나눌 때, 그녀는 상대가 호른이면 첼로가 더 내고 플루트가 들어오면 표현을 바꾸도록 요청한다. 어느 악기가 실제로 누구를 묘사하는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그녀는 같은 첼로가 만나는 악기에 따라 음량과 말투를 바꾸도록 이끈다.

제 2악장에서는 첫 바순 독주를 자유롭게 두고, 오보에와 현악으로 선율이 옮겨 갈수록 활기를 높인다. Falletta 는 자유로운 오보에 구절 뒤 Allegro molto의 저현과 바순이 들어올 때 새 박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리허설
기호 G 뒤 Vivace scherzando로 들어갈 때에는 반 마디 앞에서 지휘를 잠깐 멈춘 다음 새 빠르기의 예비박을 준다고도 했다. 이것은 모든 구절을 같은 속도에 묶는 방법이 아니라, 혼자 이야기할 때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의 시간을 다르게 조직하는 선택이다.

클라리네티스트 Sean Osborn은 게시 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자신의 작품별 교육문에서 제 2악장 카덴차의 세 차례 호출을 설명한다. 그는 각 호출의 4분음표 셋잇단음 사이를 차례로 넓히고, 뒤따르는 가속과 음량 증가의 대비도 더 크게 만든다. 첫 두 호출의 끝에서는 앞서 느려진 셋잇단음보다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구별한다. 제 3 악장의 높은 음에서는 잠시 머물렀다가 합주와 다시 맞추고, 오디션에서 지키는 극약음과 관현악 속에서
실제로 들려야 하는 음량을 구분한다. 한 독주 안의 자유도 다음 합주의 진입이나 반주 음량과 무관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경험이다.

Falletta는 제 4악장 처음의 두 번째 바이올린 카덴차를 첫 악장의 조심스러운 독주보다 강하고 빠르게
연주하도록 요청한다. 같은 이야기꾼이 돌아오더라도 앞선 독주를 똑같은 말투로 반복하지 않는 해석이다. 그녀가 제 3악장 마지막 네 마디에서 플루트부터 오보에 ·바순 ·현악으로 갈수록 소리를 줄인다는 설명 역시
자신의 지휘 선택이다. 악보에 적힌 악기 교대와 그것을 실제 공연에서 어떻게 들리게 할지는 이런 발언을 통해 구분된다.

후대의 무대와 음반

1910년 Paris에서 Ballets Russes는 이 관현악곡을 이용한 별도의 1막 발레 《Schéhérazade》를 초연했다. Michel Fokine이 안무를, Léon Bakst가 무대와 의상을 맡았고, Bakst·Alexandre Benois·Fokine이 대본을 만들었다. Zobeide와 황금 노예의 궁정 이야기는 1888년 모음곡의 네 악장에 원래부터 들어 있던 고정
줄거리가 아니다. 원곡과 발레를 구분하면 음악이 다른 무대 서사 안에서 다시 사용된 수용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세 녹음은 관현악 음색과 진행을 서로 다르게 들려준다. Thomas Beecham과 Royal Philharmonic Orchestra의 1957년 EMI 스튜디오판에서 악장 Steven Staryk가 바이올린을 맡았다. Paul Serotsky는 MusicWeb 비평에서 목관이 분명하게 들리되 마이크가 이를 과도하게 앞으로 끌어내지 않는 균형과 유연한 프레이징을 높이 평가했다. 녹음의 높은 음역이 다소 얇다는 유보도 함께 남겼다.

Fritz Reiner가 Chicago Symphony Orchestra와 1960년 RCA Victor에 남긴 녹음에서는 Sidney Harth가 바이올린을 연주했다. Chicago Symphony의 녹음사는 피날레가 편집 없이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되었다고 전한다. Serotsky는 Reiner의 비교적 직선적인 진행 안에서도 제 2악장의 바순이 유연한 루바토를 쓴다고 평가했다. 관현악의 절도와 독주자의 시간 조절을 함께 들을 수 있는 판이다.

Kirill Kondrashin과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의 1979년 Philips 녹음은 Herman Krebbers가 독주 바이올린을 맡았다. Raymond Tuttle은 Classical.net의 비평에서 시작의 목관 화음을 세심하게 다루는
방식과 Krebbers의 부드러운 독주를 짚었다. 세 녹음에서는 독주를 앞에 놓는 정도와 각 악장의 큰 흐름을
이어 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게 드러난다.

주요 자료

St Petersburg Philharmonia, 작품과 첫 공연 기록

Rimsky-Korsakov, My Musical Life, 관련 인쇄 246–249쪽

Steven Ledbetter, Boston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 National Library of Russia, □□ □□ □□
- Russian State Library, 1889□ Belaieff □□ □□
- Jonathan Del Mar, Cambridge□ □□ □□
- Belaieff/Schott, LBEL 1400 □□ □□□ □□ □□
- Kalmus, Nieweg/Holmes K-A1914 □□ ·□□□
- Michael Steinberg, San Francisco Symphony □□□ □□
- Calvin Dotsey, Houston Symphony □□ □□
- Yvonne Frindle, St Louis Symphony □□□□
- Daniel Sheridan, Hamilton Philharmonic□ □□□□□ □□
- Library of Congress, 1910□ Ballets Russes □□ □□
- Nathan Cole, □□□ □ □□ □□
- JoAnn Falletta, Hannah Baxter□□ □□□ □□□
- Sean Osborn, □□□□ □□ □□
- Paul Serotsky, MusicWeb□ Beecham·Reiner □□
- Chicago Symphony Orchestra, Reiner□ RCA □□□
- Raymond Tuttle, Classical.net□ Kondrashin □□
- Warner/Presto, Beecham □□ □□ □□
- Universal Music Japan, Kondrashin □□ □□